

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연구소 육성한다!

- 「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('26~'31, 2,895억원 투자)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4월 24일(목)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(위원장: 과학기술혁신본부장)에서 “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(GATC)” 이 총사업비 2,895억원('26~'31, 국비 2,119억원)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산업부는 첨단기술의 산실인 기업부설연구소(이하 기업연구소)의 성장을 위해 지난 '03년부터 우수기술연구센터(ATC)사업('03~'22) 및 우수기업연구소 육성(ATC+)사업('20~'26)을 지원해 왔으며,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 40% 성장, 108개社 주식시장 상장, 28개 기업 매출 1,000억원 달성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.

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부는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출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왔다.

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, 우리나라는 중국,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현저히 부족하고,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가 쉽지 않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업연구소들은 입을 모았다.

이에 “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(GATC)”은 ①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협업하여 첨단기술을 확보(기술선도형 R&D)하고, ②수출대상국 기업 및 인증기관과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(시장맞춤형 R&D)하는 동시에, ③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, 국제 법·제도 자문, 기술·시장 컨설팅, 민간투자 연계 등 R&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.

산업부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“GATC 사업을 통해 국내 우수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자체 기술역량을 확보하고, 기업연구소 성장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	책임자	과 장	박용민 (044-203-4530)
		담당자	사무관	신홍섭 (044-203-4534)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참고

수출지향형 글로벌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(GATC)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주체인 기업연구소의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기업 육성 필요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수출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도의 혁신 주체로 육성
- (사업기간/총사업비) '26년~'31년(6년) / 2,895억원(국비 2,119.4억)
- (지원대상) 수출역량 및 기술잠재력을 지닌 중소·중견기업 부설연구소
- (지원분야) 8대 핵심 투자분야 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미래모빌리티, 핵심소재, 지능형로봇, 첨단제조, 첨단바이오)

□ 세부 지원 내용

지원 트랙	기술선도형 트랙 (2,574억원)		시장맞춤형 트랙(글로벌 협력) (261억원)
	글로벌 협력 트랙 (2,117억원)	국내 협력 트랙 (457억원)	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해외 기술 선도 기관과 공동 R&D• 인력교류(국내↔국외)• 해외 연구시설장비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관과 공동 R&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고도화 R&D (국제협력 필수)• 인력교류(국내→국외)• 해외 테스트베드 활용
GATC 얼라이언스 (60억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총괄 지원 과제 : 성과 확산, 전문가 연계 및 자문, 글로벌 협력(산업기술협력센터 연계) 등		

□ 기대 효과

- 기업연구소의 자체 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민간 주도형 산업 성장
- 중소·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로 인한 신규 연구인력 등 고품질 일자리 창출